왜, 마터호른(Matterhorn)인가?

마터호른 정복기

영국 등반가 에드워드 윔퍼(Edward Whymper)는 마터호른 정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가이드는 그의 셔츠를 벗어 그가 들고 올라온 텐트 폴에 묶었다. 그리고는 "거참 형편없는 깃발이구만."이라고 말했다, 그곳에는 깃발이 펄럭일만한 바람 한 점도 없었지만 우리의 깃발은 사방에서 볼 수 있었다. 몰려든 구경꾼들은 그 깃발을 보고 1865년 7월 14일 오후 1시 40분에 마터호른이 드디어 정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팀이 마터호른 정상에 먼저 도착할까 초조했던 윔퍼와 그의 가이드, 미쉘 크로츠(Michel Croz)는 마지막 100m를 앞두고 따가운 햇볕아래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눈밭을 서둘러 올랐다. 다행히 눈밭에는 먼저 지나간 사람의 발자국이 없었다. 능선 너머를 살펴보니 그들의 경쟁자 팀이 이탈리아쪽에서 열심히 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조롱과 야유를 보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돌을 던져 자신들이 먼저 정복에 성공했음을 알렸다. 경쟁팀은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새하얀 눈에 뒤덮인 알프스 봉우리들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펼쳐져 있는 광경과 세상을 발 아래 둔 짜릿함을 한 시간 정도 즐긴 뒤, 여덟명의 팀은 하산을 시작했다.

알프스의 정상 중, 마터호른만한 명성을 가진 곳은 없다.

이들 이전에 훌륭한 산악 등반가들이 총 18번이나 도전했지만,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 오르는 코스가 비교적 쉬워보이는 이탈리아 쪽이 선호되었고, 스위스쪽의 동쪽 벽이 두 번 도전되었지만 무사히 돌아온 사람이 없던 터였다.

대부분의 가이드들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거나 거절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마터호른만 아니면 어디든 안내해 드립죠."가 그들의 반응이었다. 체르마트 주민들은 알프스 봉우리는 사람을 잡아먹는 용과 악령들에게 맡겨 두는 것이 좋다고 믿었다. 사실, 4,478m 높이의 피라미드형 봉우리 마터호른은 사냥꾼이나 크리스탈 채취자, 베테랑 등반가에 의해 정복된 것이 아닌, 당시 25세 영국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정복되었다. 런던의 출판사에서 알프스 봉우리와 고개, 빙하 스케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윔퍼는 당시 산이라고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그가 산을 오르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오름"임을 발견하고, 산 공기가 반드시 구토를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산 위에서 바라본 하늘이 시커멓지도 않았으며, 벼랑밖으로 몸을 던져버리고자 하는 기분이 들지도 않았다"고 회상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스케치를 위해 스위스를 여행하다 체르마트로 향하던 길, 대부분 영국인이었던 한 무리의 스포츠인들을 만나게 된다.
알프스 4천미터급의 봉우리 36개 중, 29개가 체르마트에 모여있는 까닭에 등반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지트는 체르마트의 몬테 로자 호텔(Hotel Monte Rosa)가 되었다. 알프스 "오름"을 즐겼던 윔퍼에게 그들은 대부분 20여명의 가이드와 영국 양반들이 무리를 지어 라운지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이들로 비쳤다. 그들은 특이한 부츠를 신고 심지어 기이한 헬맷을 착용하기도 했으며, 상처 투성이에 물집이 잡히고 얼굴은 부어있었다. 입술을 부르터있었으며, 볼은 부어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콧등은 까져있는 등 엉망진창 몰골이었다. 이 신기한 부류의 인간들은 과학적인 목적으로 산을 오르는 것도, 지도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닌, 그저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르는 사람들이었다. 윔퍼는 5년에 걸쳐 매 여름 알프스를 찾았다. 순전히 "알지 못하는 세계를 동경하는 신비한 충동에 이끌려서" 였다.

이탈리아 쪽에서의 등반에 여섯 차례나 실패하자, 마터호른을 오르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져 있었다. 밖에서 자는 법도, 벼룩이 득시글대는 목동의 오두막에서 자는 법도, 절벽에 날라가지 않을 알프스 텐트를 개발하는 법도, 암벽으로 된 벽을 오르는 것 보다 눈길을 오르는 것이 훨씬 덜 위험하다는 것도, 차근차근 배워나가게 되었다. 몇 번의 고비와 눈사태에서 살아남기도 했다.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알프스에서 최초의 봉우리 정복에 성공하기도 했다. 바르 데제크랭(Barre des Ecrins), 그랑 조라스(Grandes Jorasses). 에귀 베르트(Aiguille Verte), 그랑 코르니에(Grand Cornier) 최초 정복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마터호른을 오르는 가장 쉬운 루트는 가장 쉬워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 많은 연구 뒤, 그는 체르마트를 마주보고 있는 동쪽 벽을 선택한다. 기울기가 자그마치 40도나 되지만 면 자체가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단"과 같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이 작은 계단들이 좋은 디딤목이 되어 줄 것이라 믿었다. 이전의 경험을 통해 훌륭한 팀워크와 믿을만한 가이드 역시 무척 중요함을 알게된 그는 마터호른 정복을 위해 체르마트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믿고 있던 가이드가 자신의 경쟁자와 한 팀을 이루어 이탈리아 쪽에서 마터호른을 오르기로 했음을 알게 된다. 배신감을 이기고 로드 프란시스 더글라스(Lord Francis Douglas)와 그의 두 가이드인 타우그발더스(Taugwalders) 부자와 함께 동북면을 따라 등반할 채비를 갖춘다. 등반 전날 밤, 샤모니에서 만난 윔퍼가 신뢰하는 가이드가 베테랑 등반가인 레버렌드 찰스 허드슨(Reverend Charles Hudson)과 그의 젊은 친구인 로버트 더글라스 하도우(Robert Douglas hadow)를 데리고 나타났다. 함께 등반해 본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수 해가 지나 알파인 클럽(Alpine Club)이 하산길에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경험 부족에 의해 사고가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로프를 이어간 순서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미숙한 경험과 아픈 발로 등반을 하던 하도우가 미끌어지면서 어려운 코스를 지나던 가이드 크로즈(Croz)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이 떨어지면서

리버렌드 허드슨과 로드 더글라스 역시 같이 추락하고 만다. 한 사람 한 사람, 1300m 아래의 빙하로 떨어지고 로프는 끊어졌다. 페터 타우그발더(Peter Taugwalder)가 재빨리 바위를 부여잡고 스스로의 목숨과, 아들 페터의 목숨, 그리고 윔퍼의 목숨을 구한다.

조사 과정에서 왜 그렇게 가는 로프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무뚝뚝한 가이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확실해 졌음에도 그의 명성에는 금이가고 몇 년 후, 페터 타우그발더는 그의 고향 체르마트를 떠날 수 밖에 없게 된다. 반면, 그의 아들 페터는 마터호른을 120번 이상 올랐다.

윔퍼는 이런 기록도 남겼다.
“순간의 부주의가 기쁨을 비탄으로 바꾸어 놓았구나.”

TIPs.

체르마트의 몬테 로자 호텔 외벽에는 윔퍼의 사진이 걸려있다. 윔퍼 역시 몬테 로자 호텔의 단골 고객이었다.

타우그발더의 헤어진 로프와 하도우의 얇은 바닥으로 된 부츠를 비롯해 다른 등반가들의 소장품이 체르마트에 있는 마터호른 박물관(Matterhorn Museum)에 전시되어 있다.

이 비극은 전 세계에 전해졌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퀸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인들이 등반 자체를 못하게 금지해버릴까 고민하지만, 꾹 참았다고 한다. 이 사고를 통해 체르마트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이후 마터호른은 여름과 겨울, 남자와 여자 등반가들에 의해 다방면에서 등반이 이루어졌다. 15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왔고, 그 중 몇몇은 마을 중간에 있는 성당의 묘지에 체르마트 출신의 가이드들과 함께 묻혀 있다.

지금은 여름이면 하루에도 백여명의 관광객들이 전문 가이드와 함께 “윔퍼 루트”에 도전한다. 물론 영구 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다. 가이드들은 농담으로 오늘날 진짜로 위험한 것은 바로 ‘버려진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끌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Petit Guide de la Suisse insolite/Made in Switzerland, Mavis Guinard, Metropolis

체르마트 관광청 www.zermatt.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